

코레일 마저 ‘탈한전’...한전, 재정 건전화 빨간불

코레일, 전력 직접거래 신청...2026년까지 16곳으로 확대 계획
에너지기업·공기업 등 직접거래 가속화에 전기요금 인상 예측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력 직접구매에 나서기로 하면서, ‘탈한전’ 현상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레일을 시작으로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 도매 거래에 나설 경우 막대한 부채를 지닌 한전의 재정 건전화에도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전과 코레일,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4월 말까지 전력 직접구매를 위해 한국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전력 직접거래자 등록신청을 했다.

코레일은 전력 직접구매제를 통해 전체 전력 사용량의 63%에 달하는 17억 5100만kWh를 전력 직접구매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은 일단 올해 내로 전기요금 100억원 이상 발생 시설인 구로, 평택, 김천, 금정 등 4개 전력 시설에서 전력 직접구매를 추진하고, 2026년까지 전력 직접구매 시설을 1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전체 열차의 97%가 전기로 운영되는데, 지난해에만 전기요금으로 5796억원이 지출됐다. 코레일은 한전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 생산자에게 전력을 직접 구매하면, 내년 한해에만 280억원 인박의 절감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레일은 또 전력 직접구매제의 도입과 함께 정부

가 한전의 재정 건전화 목적으로 전기 요금을 수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력 직접구매 선택 시 비용 절감 폭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코레일의 전력 직접구매제 채택이 한전의 재정 건전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전력 직접구매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개정(안) 의결 이후 SK에너지, LG화학, SK이터닉스, 한국수자원공사 등 에너지 분야 대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전력 직접구매에 나선 가운데 거대 공기업인 코레일을 시작으로 관련 분야의 기업들이 대거 ‘탈한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각 기업들의 전력 직접거래자 등록 이후 6개월여가 지난 뒤 직접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한국전력거래소의 설명을 감안하면, 코레일은 이르면 올해 안에 직접 거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한전은 200조원에 달하는 부채와 올 1분기 말 31조 4905억원 수준의 누적적자를 지녔고, 코레일 역시 21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공기업이라는 이유로 무장정 직접 거래를 가로막을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한전이 재원 보전을 목표로 중소기업 및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예측 등도 나오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난 12일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회의실에서 연수에 참여한 공사 임직원 및 서아프리카 연수단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제공〉

“쌀 자급화 경험 공유”...농어촌공사, 한국 쌀 연수 프로그램 진행

서아프리카 7개국 연수단 등 참여...K-라이스벨트 확대 계획

한국농어촌공사(공사)는 “지난 12일 서아프리카 7개국 연수단, 세계은행,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관계자 등 39명을 대상으로 한국 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세계은행과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한국 쌀 연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사는 국제농업개발 추진 현황 및 선진 농업용수 관리 기법 등에 대한 발제를 맡아 공사의 재난안전 상황 운영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장성호를 현장 견학했다.

이번 쌀 연수 프로그램은 최근 서아프리카 지역의 도시화 및 식습관 변화로 인해 쌀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가 쌀 자급을 제고 목적으로 수립한 ‘2025-2030 지역 쌀 로드맵’ 등 다양한 과제 및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됐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한국의 선진 농업 정책 및 인프라 개발 경험을 학습하고 상호 협력을 확대하는 등 동반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과의 협력

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농업협력사업인 ‘케이(K)-라이스벨트’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공사는 농식품 국제농업협력 총괄 지원기관으로, 2023년 가나에서 첫 국제농업협력 사업을 실시한 뒤 현재 7개국에서 8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성경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장은 “국제농업협력은 대한민국의 선진 농업기술과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국과의 국제관계를 심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현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DN,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조성 돕는다

스마트에너지 기술 개발 등 협력

한전KDN은 지난 16일 나주시 빛가람동 한전KDN 본사 대회의실에서 스마트시티부산과 함께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 에너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과 이계형 스마트시티부산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서 서명, 협약 이행에 대한 다짐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은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양사가 보유한 기술력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신재생·스마트에너지 인프라 조성과 에너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환경에 적합한 신재생 인프라 및 플랫폼 조성, 에너지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에너지 기술 개발 및 실증,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국내·외 협력 사업모델 발굴 등 관련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전KDN은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 사업의 주도권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분야 추가 발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지속 가능한 다양한 서비스와 시민의 유기적인 운영을 통해 하나의 도시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친환경 스마트도시로 발전하고 미래 글로벌 스마트시티 선도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KDN은 2022년 광주시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참여를 통해 도시 에너지 관리 및 효율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현하고, 스마트에너지 분야에 전문 기술을 제공하는 등 국가가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aT, 중동에 K-푸드 진출 거점 구축...민관 협업센터 출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6일(현지시간) 아랍 에미리트 aT 두바이지사에서 ‘중동 K-Food 영도확장 민관 협업센터’ 현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홍문표 aT 사장, 안병우 NH농협 축산경제 대표, 김용욱 한국한우수출조합협의회 회장, 권휘 세계한인무역협회 두바이지회장 등이 참석해 K-푸드의 중동시장 공략을 위한 민관 협력 의지를 다졌다.

민관 협업센터는 aT 두바이지사가 우리나라 식자재 등 먹거리들의 중동 수출 확대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중동 각국의 수입 규제 정보 제공, 바이어 매칭, 현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수출업체들의 중동시장 안착을 위한 종합 지원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센터에서는 국내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유오피스 제공,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할랄 한우 수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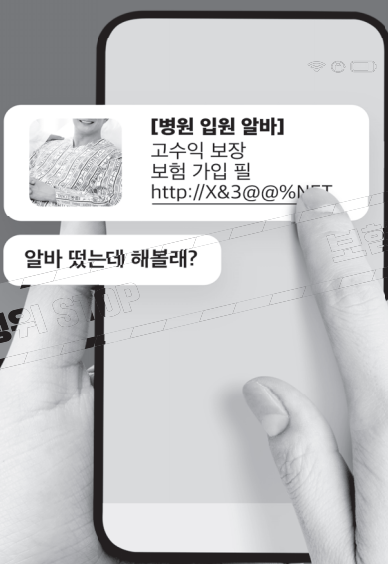
홍문표 aT 사장은 “중동은 중남미, 인도와 함께 한국 농식품의 3대 신시장으로 꼽히는 만큼, 시장 공략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할 때”라며 “이번 협업센터가 한국 농식품의 중동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사장은 같은 날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이범찬 총영사를 만나 할랄 인증 한우를 중심으로 전략 품목의 중동 진출 확대, 현지 유통망 구축, 정부 간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알선이란? |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